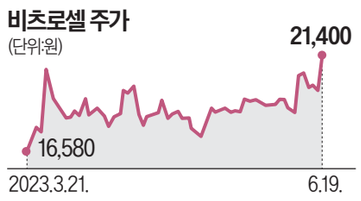
美·유럽서 쏟아진 주문 … '리튬전지' 1억弗 수출

'불사조 기업' 비츠로셀



美·유럽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
리튬 1차전지 수요도 동반 증가
1분기 영업익 165% ↑ '호실적'
방산용 앰플 배터리 납품도 늘어

2017년 공장 전소 위기에도
간이 설비서 제품 생산해 '부활'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군자동 사무실에서 자사 리튬 1차전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최형창 기자

"드디어 1억달러 수출탑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군자동 비츠로셀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장승국 대표 입가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문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이번달까지 비츠로셀의 수출 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1987년 설립된 비츠로셀은 대표적인 리튬 1차전지 제조기업이다. 테크라프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우전자 자회사로 편입됐고 2002년 비츠로그룹에 인수됐다. 대우 출신인 장 대표는 2006년 비츠로셀에 합류해 2008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전지는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2차전지와 일회용인 1차전지로 나뉜다. 1차전지는 저장 기간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사용 가능 온도 범위도 영하 55도부터 150도대까지 넓다. 그 덕분에 배터리 교체나 충전이 어려운 환경의 군용·시추용 장비 및 기기에 사용된다.

비츠로셀은 지난해 전년 대비 24.62% 증가한 14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65.12% 늘어난 287억원을 기록했다. 호실적은 올 1분기에도 이어졌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1% 증가한 364억원, 영업이익은 165.1% 늘어난 88억원에 달했다.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스마트 그리드'(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 접목) 교체 바람에 올라탄 영향이 크다. 장 대표는 "전기, 수도 계량기가 기계식이었는데 북미와 유럽 등은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스마트 미터링'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배터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도 매출의 한 축이다. 무기가 첨단화하면서 정해진 시간과 각도에 맞춰 쏘는 '포' 사용이 늘고 있다. 이 포에 들어가는 '앰플 배터리'를 비츠로셀이 생산한다. 자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럽 주요국 군대에 납품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장 대표는 "사업장에 마련된 신뢰성 검사실을 통해 빅데이터를 쌓고, 공급하는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츠로셀은 '불사조 기업'으로도 통한다. 2017년 4월 충남 예산공장이 화재로 전소했다. 가동 완전 중단의 시련을 겪었지만 1년 만에 일어섰다.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었다. 생산시설 전소로 신공장 공사 계획이 1년 이상 앞당겨졌다. 비츠로셀은 2018년 900억원을 투자해 충남 당진에 종전 공장의 세 배 규모(4만4548㎡)인 본사 및 공장을 지었다. 장 대표는 "화재 후 3개월여 만에 간이 공장을 구비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했다"며 "화재로 죽다 살아나니 고객의 신뢰가 한 층 더 단단해졌다"고 강조했다.

비츠로셀은 1차전지에 사용된 리튬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장 대표는 "리튬이 중국 의존적인 광물이어서 이를 조금이라도 탈피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했다. 3개월 가까이 1만7000원대를 횡보하던 주가는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만원을 넘어섰다. 최형창 기자

포드 올라탄 두성테크 채용 늘려 몸집 키운다

사업 다각화 성공한 IT부품사

포드에 전기차용 PBA 모듈 납품
2년 연속 채용·설비투자도 확대

경기 침체 우려로 감원 한파가 거센 가운데 거꾸로 채용에 열심인 강소기업이 있다. 경기 수원에 있는 PBA 모듈 제조업체 두성테크는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본사 직원(90명)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났는데 2분기에도 신규 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김묘근 두성테크 대표(사진)는 "2년 연속으로 채용을 늘리고 있다"며 "증가하는 일감을 소화하려면 직원을 안 늘릴 수가 없다"고 19일 밝혔다.

1997년 설립된 두성테크는 서로 다른 기능의 여러 인쇄회로기판(PCB)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부품으로 만든 PBA 모듈 전문 제조사다. 이 회사 PBA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폴더블(접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장착된다.

이 회사가 채용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 주력 사업인 정보기술(IT) 부문 외 사업 다각화가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자장치(전장)가 대표적이다. 미국 포드의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매니지먼트(BMS)용 PBA를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보통 3~4년 걸리는 완성차 업체의 품질 승인을 1년6개월 만에 받았다"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 이어 최근 증량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포드 이외에 또 다른 미국 완성차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 개척 작업도 곧 성과를 낼 전망이다.

전장 부문 내 신규 먹거리도 준비 중이다. 그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와이파이 모듈 등 텔레매틱스와 인포시스템으로 전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는 회로기판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시장도 새 먹거리다.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워치5용 온도센서를 최근 양산하기 시작했다. 체온을 측정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는 부품이다.

제조라인 자동화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공장 자동화율은 2021년 10%에서 올해 40% 선으로 높아졌다. 2년 내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 대표는 "양품과 불량을 구분하는 공정 자동화를 양산 라인에 적용해 고객사인 삼성전자로부터 품질 혁신상 및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다. 올해 매출은 전년 1844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김병근 기자

KCC '메타크루즈 NS' 도료 선박 따개비 부착 걱정 없애

KCC는 배와 해양시설에 따개비, 조개 등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방오제를 함유한 양극성 실리콘 방오도료인 '메타크루즈 네오실리콘(NS)'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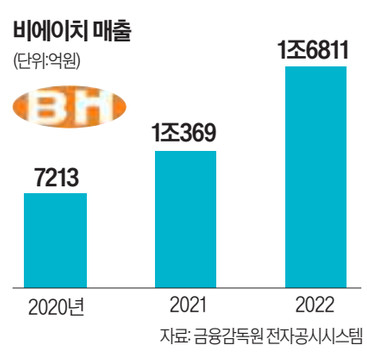
메타크루즈 NS에는 국내 최초로 실리콘 도료에 양극성 기술을 접목해 수중 동식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오제가 첨가됐다. KCC는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양극성은 물에 잘 융합되는 친수성(親水性)과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疏水性)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의미다.

선박 표면에 해양생물이 붙어 자라면 마찰저항력이 높아져 배가 느려진다. KCC 관계자는 "메타크루즈 NS는 연료 절감 효과가 커 선박 운항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했다. 강경주 기자

통신·전장의 힘으로 … 비에이치, 글로벌 영토 넓힌다

연성회로기판 국내 1위 업체

전장 수주잔액 2조·5G 부품 국산화
오늘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수년간 준비한 자동차 전자장치(전장) 및 통신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에 힘을 보탤 겁니다."

최영식 비에이치 대표는 "매출 다변화로 한층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1999년 설립된 비에이치는 연성회로기판(FPCB) 국내 1위 회사다. 지난해 매출 1조6811억원에 영업이익 1313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선 후 16년여 만인 20일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

이 회사 FPCB는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특히 OLED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응용처가 확대되면서 FPCB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에이치는 전장 부문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LG전자 전장사업부의 무선충전사업부를 인수해 '비에이치 이브이에스(EVS)'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의 1차 협력사 및 차량용 무선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확보했다. 앞으로 10년간 공급할 수주 잔액만 2조원을 넘는다. 최 대표는 "전장용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하면 하반기에는 글로벌 완성차가 요구하는 고사양·고품질 제조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며 "제조 공정 전반을 자동화해 전기차 배터리 케이블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안테나 모듈 등 자동차 전 부품 분야로 영토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업 분야도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독점해온 5세대(5G) 이동통신용 안테나 소재를 국산화한 부품은 스마트폰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강경주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 가능한 폴딩도어

으뜸 중기

폴젠코리아, 단열·슬림형 신제품

폴딩도어는 폈을 때 공간을 분리할 수 있고 접으면 공간을 확장한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상가와 아파트 베란다 등에 널리 활용된다. 최근엔 개인 소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딩도어 업체인 폴젠코리아는 다양한 상품군을 내세워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 제품은 보급형인 '90도 직각프레임 폴딩도어'(사진)다. 90도로 절단된 프레임을 연결해 조립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폴리아미드 단열재를 적용한 '단열 폴딩도어'와 소형화·경량화를 앞세운 '슬림형 폴딩도어'도 내놨다. 단열 폴딩도어는 기존 알루미늄 제품의 단점인 에너지 손실과 결로 현상을 개선했다. 슬림형 폴딩도어는 프레임을 얇게 만들어 작동이 쉽고 더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2020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백재경 대표는 "폴젠코리아의 폴딩도어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관공서,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프랑스국립현대미술관展 – 뒤피, 행복의 멜로디

2023. 5. 17(수) – 9. 6(수) 더현대 서울 ALT.1

20세기 주요 미술사조를 오롯이 품은 프랑스 작가, 라울 뒤피(1887-1953)의 작품 130여 점이 12개 주제로 펼쳐집니다.
작가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퐁피두 센터의 노장 큐레이터, 크리스티앙 브리앙이 방한하여 직접 연출 · 설치한 라울 뒤피의 정수를 더현대 서울에서 만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자세히 보기